

葛洪의 文學創作論

鄭 在 書*

I. 序 言

기원 4세기 초 東晉의 저명한 도교학자 葛洪(A.D. 283-343)은 《抱朴子》 內外篇 70卷을 찬술한다. 주지하듯이 이 책의 내편은 魏晉 이전 丹鼎派 도교의 이론과 방술을 집대성하고, 그리하여 후세의 도교학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불후의 노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학술사적인 방면에서 내편만큼 주목받지는 못하였으나 외편에서는 일견 도교와 상관없어 보이는, 당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채를 발한다. 특히 외편은 내편의 소박한 문체와는 달리 당시에 유행하던 화려한 駢儷體 산문으로 서술되어 있어 우리는 갈홍을 단순한 도교도가 아닌 문학가로서도 고찰해 볼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아닌게 아니라 외편의 도처에서 그는 문학에 대한 깊은 관심을 피력하고 있고 文學進化論을 비롯 그의 몇 가지 특유한 論見들은 문학사 혹은 비평사에서 빠짐없이 거론되고 있을 만큼 위진시기의 중요한 문학론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제까지 정리되었던 갈홍의 문학론 중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창작론에 대해 도교와 문학과와의 이론적 類比를 의식하면서 試論해보고자 한다. 갈홍의 《포박자》 찬술의 이면에는 仙學의 傳承이라는 종교적 의도 이외에 漢代이후 불우한 지식인들이 私的 저술로

* 이화여대 중어중문학과 교수

서 현실을 초극하려 했던 이른바 ‘子書’ 창작의 風氣가 그의 문예적 욕구를 자극하였던 사정도 있었음을 推察하지 않을 수 없다.¹⁾ 이러한 측면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포박자》를 도교학과 아울러 문학에 대한 욕구가 공존하는 텍스트로서 읽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외편에서 전개된 그의 창작론도 결코 내편의 도교논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본고에서의 논의는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진행될 것이다.

II. 葛洪의 文學的 來源

갈홍 문학론의 유래를 고찰함에 있어 《포박자》 내외편 이라는 거의 한정된 자료만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아무래도 그가 《포박자》 내에서 긍정적으로 거론했던 문인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漢代 諸儒中, 王充·揚雄 두 사람과 갈홍보다 약간 앞서 생존하였던 陸機(A.D. 261-303)와 嵇含(A.D. 263-306)이 있다.

이들 중 왕충에 대한 敬慕는 특히 두드러져 그는 외편에서 왕충의 저작인 《論衡》을 변호하기 위해 따로이 章을 마련하였을 정도이다.²⁾ 양웅에 대해서는 외편, 卷24, <酒戒>篇에서 “揚子雲은 통달한 사람이어서 재주가 높고 사상도 깊다. 그의 풍부하고 뛰어난 재주는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다.”(揚雲通人, 才高思遠. 英瞻之富, 稟之自天.)³⁾라고 한 것을 비롯 《포박자》 도처에

1) 갈홍의 王充에 대한 극찬 (外篇, 卷 43, <喻蔽>)과 스스로 子書を 지어 文儒가 되겠다는 소망의 피력 (外篇, 卷 50, <自敍>)에서 이 점은 분명히 드러난다.

2) “余雅謂王仲任作論衡八十餘篇, 爲冠論大才……”로 시작하는 外篇, 卷43, <喻蔽>篇이 그것이다.

3) “揚雲酒不離口, 而太玄乃就.”라는 혹자의 주장에 대한 반박중의 一節이다.

賞讚하는 대목이 있다. 근래 大淵忍爾와 石島快隆의 연구에 의해 《포박자》는 이들 王·揚 두 사람의 작품과, 목차 심지어는 文句까지 유사한 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⁴⁾ 창작과정에서의 이러한 模襲으로 미루어 그가 두 사람의 문학론을 깊이 의식하였을 것임은 틀림없다.

그와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 해도 좋을 육기에 대한 언급은 외편 佚文 數處에서 보이는데 “陸선생의 글은 崑崙山에 쌓인 玉과 같아 夜光珠 아님이 없다. 우리가 그의 글을 분별하지 못함은 마치 난장이가 바다를 헤아림과 같이 잘 할 수 없는 바이다.” (陸君之文, 猶玄圃之積玉, 無非夜光. 吾生之不別陸文, 猶侏儒測海, 非所長也.)라고 함과 같이 앞서의 두 사람에 비해 보다 문예적인 評讚을 가하고 있는 점에서 주목된다.⁵⁾ 廣州刺史로서 갈홍의 후원자였던 馮함은 외편, 권 47, <彈禰>篇과 외편 佚文 數處의 주로 문인을 비평하는 자리에서 갈홍의 상대역으로 등장하고 있다.⁶⁾ 갈홍은 역시 그에 대해서도 대단한 경외감을 표시하고 있다.

벗 滕永叔이 내게 물었다. ‘嵇君道는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답하였다. ‘한 시대의 커다란 인물이다. 글을 지음에 있어 그 빼어난 모습은 함께 겨룰 사람이 없다.’

(友人滕永叔問吾, 嵇君道何如人? 余答曰, 一代偉器也. 摘毫英觀, 難與並驅.)⁷⁾

4) 大淵忍爾, <抱朴子研究序說> 《岡山大學法文學部學術紀要》(日本, 1956), No. 5. 및 石島快隆, <葛洪의 儒家及び道家思想의 系列とその系譜的意義につくて> 《駒澤大學研究紀要》(日本, 1959), No. 17. 참조.

5) 陸機의 文辭에 관해 賞讚하는 대목은 이 밖에도 더 들 수 있다. “吾見二陸之文百許卷, 似未盡也.……, 方之他人, 若江漢之與漢汗. 及其精處, 妙絕漢魏之人也.”(《全晉文》). 二陸은 陸機와 그의 아우 陸雲을 말한다.

6) 다음과 같은 글을 보면 상대역이라기보다, 자문역의 위치에 있다. “余嘗問嵇君道曰, 左太沖張茂先可謂通人乎? 君道答曰, 通人者, 聖人之次也, 其間無所復容.”(위의 책)

7) 위의 책.

그러나 “학문을 좋아하고 글을 잘 지었다(好學能屬文)”⁸⁾라는 간략하기 그 지없는 오늘날 그에 대한 《晉書》의 기록만을 가지고는 그의 문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갈홍에의 영향 관계도 詳考할 길이 없다.

《포박자》에는 언급이 없지만 王充·揚雄·陸機·嵇康 이외에 가능성이 고려되는 인물로 干寶(A.D. 317 전후)가 있다. 갈홍과 그와의 관계는 《晉書》에 보인다. “간보가 더불어 깊이 벗하여, 갈홍의 재능이 國史 편찬의 직을 감당할 만하다고 천거하였다.”(干寶深相親友, 薦洪才堪國史.)⁹⁾고 하니까 상당히 밀접했던 사이였음을 엿볼 수 있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두 사람이 공히 신비주의자였다는 사실에 의해서도 그럴싸하게 이해된다.¹⁰⁾ 《진서》의 이같은 기록을 중시하여 林田愼之助와 陳飛龍은 갈홍의 문학론 형성에 간보가 크게 능하였으리라 확신하고 나아가 간보의 親友였던 曠朴(A.D. 276-324)에게까지 이러한 신념을 확대시켰다.¹¹⁾ 하지만 《진서》의 기재상황이나 진비룡 자신이 작성한 갈홍의 연보에 따르면¹²⁾ 두 사람이 교유하게 된 것은 갈홍이 44세때인 東晉 成帝 咸和 元年(A.D. 326)의 일로 이것은 《포박자》가 완성된 東晉 元帝 建武 元年(A.D. 317)에서 9년이나 경과한 후의 사실이어서 설사

8) 《晉書》, 卷89, <嵇紹>傳 附載.

9) 《晉書》, 卷 72, <葛洪>傳.

10) 兩者는 또한 당시에 유행했던 淸談에 대해 격렬한 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일치하고 있다. 安岡正篤, <老莊思想に於ける藝術的及宗教的素質とその影響> 《支那》(日本, 1927) 18, No. 1, p. 79.

11) 林田氏는 干寶, 陳氏는 郭璞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林田愼之助, 《中國中世文學評論史》(日本: 創文社, 1979), p. 100, pp. 108-109. 陳飛龍, 《葛洪之文論及其生平》(臺北: 文史哲出版社, 1980), pp. 131-133.

12) 《晉書》, 卷 72, <葛洪>傳에서는 그가 干寶를 알기 전후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咸和初, 司徒導召洪補州主簿, 轉司徒掾, 遷諮議參軍. 干寶深相親友, 薦洪才堪國史, 選爲散騎常侍, 領大著作, 洪固辭不就.” 陳氏는 갈홍과 간보의 교유가 시작된 해를 咸和 元年(A.D. 326)으로 잡고 있다. 위의 책, p. 79.

그들이 갈홍에게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포박자》에서 개진된 문학과 관련하여 함께 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통하여 혜함과 간보를 배제할 때, 갈홍 문학론의 연원으로서 비교적 신뢰해도 좋을 만한 문인으로는 왕충·양웅·육기의 삼인이 남게 된다. 이들 중 왕충과 육기는 갈홍과 같은 강남 출신의 인사로 그들에 대한 애호는 그의 독특한 심리적 측면, 즉 吳人으로서의 문화적 자부심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각된다.¹³⁾

갈홍에게 영향을 준 王·揚·陸 三人의 문학론은 크게 漢代와 西晉 太康期の 그것으로 汎論될 수 있다. 이것은 왕충과 양웅을 갈홍 사상의 漢儒의 계보와 관련하여 일괄하고 그가 보여주는 육기 이외의 다른 태강 문인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고려함으로 해서이다.¹⁴⁾

漢代 諸儒는 荀子계통으로 대체로 그들은 尙用과 載道의 관점에서 문학의 내용성을 중시하였다.¹⁵⁾ 반면에 太康期는 형식미를 우선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상반된 연원하에서 갈홍이 如何히 이들을 조화시키면서 나름대로의 문학론을 전개시키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다음의 창작론에 대한 탐구에서도 의식되지 않을 수 없다.

Ⅲ. 葛洪의 文學創作論

풍부한 내용과 화려한 문체로서 그야말로 辭義兼備한 《포박자》를 찬술

13) 林田氏は 갈홍과 육기와의 관계를 그러한 측면에서 추리했다. 앞의 책, p. 112. 실상 육기도 北方 文士에 대해 대단한 경멸감을 표시했던 인물이었다. 許世瑛, <晉時南北人相輕> 《大陸雜誌》(香港, 1950) 1, No. 6, p. 17.

14) 《抱朴子》, 外篇, 佚文에서는 육기를 비롯, 陸雲·張華·左思·潘岳 등 주로 太康 문인들이 논의되고 있다.

15) 朱榮智, 《兩漢文學理論之研究》(臺北: 聯經出版社業公司, 1978), p. 44.

한 갈홍은 실제로 창작 수행에 대해 어떠한 논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근본적으로 글을 쓴다는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갈홍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많은 돈을 께짜에 쌓아 놓아도 아끼고 쓰지 않으면 그와 가난한 사람과의 차이를 알 수 없고, 빼어난 文彩를 마음속에 품고 있어도 붓과 종이에 뜻을 부치지 않으면 그와 어리석은 사람과의 다른 점을 알지 못한다.

(積萬金於篋匱，雖儉乏而不用，則未知其有異於貧窶。懷逸藻於胸心，不寄意於翰素，則未知其有別於庸猥。)¹⁶⁾

갈홍에 의하면, 인간은 반드시 자신을 外現할 줄 알아야 하고 이에의 결정적인 수단인 文筆이다. 이러한 관점은 “文質彬彬”을 이상적인 경지로 추구했던 고대 士人들의 일반적인 心態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일단 寫作에 들어 갔을때 그 표현된 양상은 한결같지 않다.

글의 스케일과 韻致의 넓고 좁음, 어휘 구사와 비유의 영성하고 치밀함, 감동이 미치는 범위의 길고 짧음, 근거와 인용의 깊고 얇음 등의 현격함은 비록 하늘 바깥과 붓대롱 속의 차이로도 그 아득함을 비교할 수 없다.

(若夫翰迹韻略之宏促，屬辭比事之疏密，源流至到之修短，蘊藉汲引之深淺，其懸絕也，雖天外毫內，不足以喻其遼邈。)¹⁷⁾

실제 창작상에 있어서 천태만상의 이같은 현상의 원인을 갈홍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무릇 才質은 맑고 흐림의 차이가 있고 생각도 길고 짧음의 차이가 있어 비록 함께 글을 짓는다 하더라도 가지각색이다. 어떤 사람은 넓긴 하지만 깊이가 없고, 어떤 사람은 의미는 잘 파악하고 있지만 표현이 둔하고, (어떤 사람은)

16) 外篇, 卷 38, <博喻>.

17) 外篇, 卷 32, <尙博>.

이치에는 맞지 않지만 글만은 교묘하다. 대개 치우친 장점으로 한 군데에 이른 것이지 다 잘하는 재능은 아닌 것이다. 스스로를 해야림에 어두워, 억지로 모든 것을 다 하고자 하여 자신의 재능을 벗어나 일을 바꾸어 하므로, 비웃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夫才有清濁, 思有修短, 雖竝屬文, 參差萬品. 或浩瀆而不淵潭, 或得事情而辭鈍, 違物理而文工, 蓋偏長之一致, 非兼通之才也. 關於自料, 強欲兼之, 違才易務, 故不免嗤也.)¹⁸⁾

각자의 재능과 사고에는 한계가 있고 그 여하에 따라 문장도 천차만별이라는 갈홍의 견해는 魏晉 玄學의 중요한 논제 중의 하나였던 才性論과 무관하지 않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曹丕의 文氣說과 상관된다. 《典論》〈論文〉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글은 氣를 위주로 하는데, 氣의 맑고 흐림은 타고난 것이어서 억지로 이를 수는 없다. 음악에 비유한다면, 曲度나 節奏가 비록 같을지라도 氣를 끌어들이는 한결같지 않기에 능란함과 서투름에 차이가 있는 것이니 비록 부모일지라도 그것을 자식에게 전할 수 없다.

(文以氣爲主, 氣之清濁有體, 不可力強而致. 譬諸音樂, 曲度雖均, 節奏同檢, 至於引氣不齊, 巧拙有素, 雖在父兄, 不能以移子弟.)¹⁹⁾

재능의 여하가 천부적인 것이라고 하는 관념은 당연히 창작에 있어서 天才를 중시하게 된다. 갈홍은 비유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피력한다.

가래나무가 산같이 쌓여 있어도 班輸같은 名工이 아니면 솜씨좋은 가공을 할 수 없고 한없이 많은 책이 있어도 英才가 아니면 眞髓를 뽑아낼 수 없다.

(梓豫山積, 非班匠不能成機巧. 衆書無限, 非英才不能收膏腴.)²⁰⁾

18) 外篇, 卷 40, 〈辭義〉.

19) 《文選》, 卷 52.

20) 外篇, 卷 40, 〈辭義〉.

재물이 넉넉하지 않으면 그 혜택도 넓지 않고 재주가 뛰어나지 않으면 그 文辭도 풍부하지 못하다.

(財不豐, 則其惠也不博. 才不遠, 則其辭也不贍.)²¹⁾

그러나 갈홍은 좋은 글을 쓰기 위해 天才만으로 부족하다는 균형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여러가지 다양한 표현 기교를 講究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갈홍은 소박한 天然主義에 반대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말하였다. ‘하늘과 땅이 둥글고 네모난 것은 그림쇠나 곱자가 한 일이 아니고,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내는 것은 옥돌을 갈듯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봄꽃이 찬란한 것은 물감들인 빛깔이 아니고, 香草의 그윽한 향내는 화장품에서 빌린 것이 아니다. (따라서) 지극히 참된 것은 천연적인 데서 그 가치를 찾아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포박자가 답하였다. ‘맑은 음은 바른 소리가 잘 조화됨으로 해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저작은 미묘한 이치를 명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八音은 악기는 달라도 음계는 같으며 수놓은 예복은 무늬의 모양은 달라도 五色은 균일하다. 다만 잘하고 못함과 아름답고 미움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리하여 훌륭한 음악, 굉장한 요리는 그 곡조나 맛이 일정하지 않다.’

(或曰, 乾坤方丹, 非規矩之功. 三辰攜景, 非瑩磨之力. 春華燦煥, 非漸染之采. 菡蕙芬馥, 非容氣所假. 知夫至眞, 貴乎天然也.……抱朴子曰, 淸音貴於雅韻克諧, 著作珍乎判微析理. 故八音形器異而鐘律同, 黼黻文物殊而五色均. 徒閑澀有主賓, 妍媸有步驟, 是則總章無常曲, 大庖無定味.)²²⁾

저작을 통해 미묘한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천편일률적인 서술을 지양하고 수사학상의 갖가지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 갈홍의 주장이다. 이 같이 방법적인 문제를 염두에 둘 때 문필가에게는 크게 두 가지 경향의 병폐가 있음이 인지된다.

21) 外篇, 卷 39, <廣譬>.

22) 外篇, 卷 40, <辭義>.

글을 짓는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다. 심한 경우 비유가 번거롭고 말이 길어지는 문제인데, 거듭되는 훈계와 넓은 비유를 버리자니 아깝고 해서 자신도 모르게 번거롭게 되는 것이다. 가벼운 경우 아름답긴 하지만 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증거를 달 수 없기 때문에, 결만 반지르르 할 뿐 뼈대는 더욱 약해지는 것이다.

(屬筆之家, 亦各有疾. 其深者則患乎譬煩言冗. 申誠廣喻, 欲棄而惜, 不覺成煩也. 其淺者則患乎妍而無據, 證援不給, 皮膚鮮澤而骨更迥弱也.)²³⁾

첫번째의 경우는 너무 내용성을 강조했을 때의 병폐이고, 두번째는 형식미에 치중했을 때의 병폐이다. 이중 두번째 문제에 대한 의식은 “疾虛妄”을 표방했던 王充의 실증적 태도에서 기인한다 할 것이다. 郭紹虞는 左思를 갈홍과 같은 章에서 다루면서, 두사람 모두 왕충의 영향으로, 좌사는 賦論에서, 갈홍은 文論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게된 것이라고 하였는데,²⁴⁾ 실제로 갈홍은 외편 권 30, <鈞世>篇에서 좌사의 <三都賦>를 <<詩經>>을 능가하는 작품으로 열거하고 있고, 佚文中에는 좌사의 기량에 대해 敬畏感을 표시하고 있는 대목도 있어²⁵⁾ 그의 이러한 문제의식이 직접적으로는 그보다 약간 선배였던, 좌사의 치밀한 賦作태도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갈홍은 형식상의 문제를 내용상의 그것보다 가벼운 것[淺者]으로 보고 있어 당시의 唯美主義 文風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갈홍은 이미 文學進化論에서 고찰된 바와 같이 言文一致의 쉬운 글을 쓸 것을 주장하기도 하고, 博覽主義의 입장에 서서 饒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한다.

23) 위의 책.

24)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臺北: 明倫出版社, 1970), pp. 44-46.

25) “余嘗問嵇君道曰, 左太冲張茂先可謂通人乎? 君道答曰, 通人者, 聖人之次也, 其間無所復容.”(《全晉文》, 卷 117).

글은 말과 같다. 만약 이를 말로 표시한다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胡人과 越人이 만나면 끝내 말을 통하지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느 누가 그것을 알겠는가? 만약 말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으로서 잘하는 것이라 한다면 글은 어찌하여 알기 어려운 것을 좋다고 하는가?

(書猶言也, 若入談語, 故爲知有(疑作音). 胡越之接, 終不相解. 以此教戒人, 豈知之哉? 若言以易曉爲辨, 則書何故以難知爲好哉?)²⁶⁾

말이 적으면 지극한 이치를 다할 수 없고 어휘가 부족하면 모든 일을 시원스레 설명할 수 없다. 반드시 몇 篇과 몇 卷의 글을 써야 요점이 드러나는 것이다.……술한 말이 합쳐져야 道藝가 밝혀진다.

(言少則至理不備, 辭寡即庶事不暢, 是以必須篇累卷積, 而綱領舉也.……群言合而道藝辨.)²⁷⁾

이중 특히 언문일치론은 왕충의 대담한 견해를 계승한 것이긴 하지만 宋代 이후 白話文學의 흥기에 대해 선구적인 의미를 띠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갈홍에게 있어서 상술한 바 창작상의 갖가지 원칙을 留念한 결과로서의 바람직한 문장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화려하고 빛남은 해와 달과 별들과 나란히 높이 매여 있고 심오하고 미묘함은 검푸른 못의 헤아릴 수 없는 깊이 만큼이나 하다. 人間事에 대해 자세한 것까지 미치지 않음이 없고 王道에 대해 세밀한 것까지 갖추지 않음이 없다. 따라서 능히 몸은 천하더라도 말은 귀하게 되어 천년 후에 더욱 (그 이름이) 드러날 수 있다.

(繁華暉曄, 則竝七曜以高麗. 沈微淪妙, 則儕玄淵之無測. 人事靡細而不泐, 王道無微而不備. 故能身賤而言貴, 千載彌影焉.)²⁸⁾

화려한 수사기교를 발휘하여 人事와 王道를 밀도있게 다룬 문장, 이것은 그가 갈망하여 마지않는 辭意兼備한 子書體의 문장이 아닐 수 없다. 명백히

26) 外篇, 卷 30, <鈞世>.

27) 外篇, 卷 43, <喻蔽>.

28) 外篇, 卷 40, <辭義>.

자서체 문장을 의식하면서 전개된 그의 창작론은 羅根澤·林麗雪·梁榮茂 등이 지적하였듯이, 天才와 방법적 노력의 並重으로 귀납된다.²⁹⁾ 갈홍은 다음과 같이 비유를 통하여 이러한 취지를 천명한 바 있다.

南威·靑琴같은 여인은 미색의 극차이지만 반드시 요란한 화장으로 아름다움을 더한 것이며 顏回·子游·子夏 등은 비록 천재가 탁월했지만 실인즉 고전에 의해 지혜를 넓힌 것이다.

(南威靑琴, 姣冶之極, 而必俟盛飾以增麗. 回賜游夏, 雖天才雋朗, 而實須墳誥以廣智.)³⁰⁾

和氏가 피눈물을 흘렸다는 보석도 玉을 가는 숫돌에 의해 광채를 낸 것이며,…… 훌륭한 소질도 엄히 다잡아야 미덕을 이룬다.

(泣血之寶, 仰礪礪以擒景,……令質俟隱括而成德.)³¹⁾

창작상에서 天才와 방법, 양자를 고려하는 입장은 내편의 신선사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홍은 漢代에 유행하였던 氣化宇宙觀에 입각하여 인간의 운명은 각자가 속해 있는 星宿의 氣運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다.

「仙經」을 詳考컨대, 신선이 된 사람은 모두 命을 받을 때 신선의 氣에 우연히 해당되어 저절로 타고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뱃속부터 이미 道를 믿는 본성을 지니고 있고, (道를) 알게 됨에 이르러서는 마음속으로 그 일을 좋아하게 되어, 반드시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법을 깨치게 되어 있다. 이와 같지 않은 경우, 믿지도 추구하지도 않거니와, 추구하여도 또한 (신선이) 될 수 없다. 《玉鈴經》 <主命原>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사람의 길흉은, 受胎해서 氣를 받는 날에 결정된다. 누구든 하늘로부터 冥별의 精을 얻는 것인데, 그것이 聖宿에 해당되면 현인이 되고, 文宿에 해당되면 문인이 되고, 武宿에 해당

29) 羅根澤, 《魏晉六朝文學批評史》(臺北: 商務印書館, 1976), pp. 73-74. 林麗雪, 《抱朴子內外篇思想析論》(臺北: 學生書局, 1980), p. 162. 梁榮茂, 《抱朴子研究》(臺北: 牧童出版社, 1977), pp. 140-141 참조.

30) 外篇, 卷 38, <博喻>.

31) 위의 책.

되면 武人이 된다……’라고.

(按仙經以爲諸得仙者，皆其受命偶值神仙之氣，自然所稟。故胞胎之中已含信道之性，及其有識，則心好其事，必遭明師而得其法。不然則不信不求，求亦不得也。玉鈴經主命原曰，人之吉凶，制在結胎受氣之日，皆上得列宿之精，其值聖宿則聖，值賢宿則賢，值文宿則文，值武宿則武……)32)

氣化宇宙觀이 외편에 반영된 흔적은 역력하다. 인간을 39種의 善人과 45種의 惡人으로 분류, 정의한 외편, 卷 22, <行品>篇과 既述한 바 “才有清濁，思有修短，雖竝屬文，參差萬品。”이라는 창작론상의 언급이 그것이다. 갈홍의 이러한 숙명론적인 견해는 왕충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철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갈홍은 신선의 자질이 천부적인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자질에 明師의 지도, 積德, 服藥, 각종 方術의 습득 등, 후천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결코 득선할 수 없다고 學得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숙명론자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는 수행 방법으로서 服氣法에 대한 신뢰이다. 그는 星宿로부터 부여받은 氣를 결정적인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이를 후천적으로 배양, 운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천적인 稟氣와 방법적인 노력을 결합함으로써 得仙할 수 있다는 내편의 신선사상이 외편의 창작론을 형성하는 데 원리적인 기여를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羅根澤은 갈홍이 조비의 천재주의와 육기의 방법주의로 대표되는 위진 창작론의 두 가지 경향을 받아들여 양자의 편벽성을 지양, 종합하였다고 평가하였는데33) 이러한 評言은, 자연스레 우리로 하여금 위진 이래 문학론의 집대성이었던 《文心雕龍》과 갈홍과의 상관성을 고려하게 한다.

실로 劉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32) 內篇, 卷 12, <辨問>.

33) 羅根澤, 앞의 책, p. 74.

대저 감정이 움직이면 말로 드러나고 이치가 생기면 글로 나타나는데 대체로 은밀함을 따라서 분명함에 이르고 안쪽으로 말미암아 바깥에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능에는 뛰어난과 못함이 있고 기질에는 억셈과 부드러움이 있으며, 배움에는 깊고 얕음이 있고 버릇에는 점잖음과 속됨이 있는데 이 모두는 타고난 본성과 교육의 정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文筆의 세계는 구름과 파도처럼 변화무쌍하다.

(夫情動而言形, 理發而文見, 蓋沿隱以至顯, 因內而符外者也. 然才有庸儻, 氣有剛柔, 學有淺深, 習有雅鄭, 並情性所鑠, 陶染所凝, 是以筆區雲譎, 文苑波詭者矣.)³⁴⁾

유협이 말하는 바 “情性”과 “陶染”은 각각 선천적인 才氣와 후천적인 학습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³⁵⁾ 갈홍과의 상관성은 어렵잖게 입증될 수 있다.

IV. 結 語

이상으로 갈홍의 창작론을 《포박자》 외편에서 전개된 논점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의 창작론은 《포박자》 찬술이라는 스스로의 저작 동기 및 행위와 무관하지 않는데, 이에 따라 문화적으로는 도교와 문학, 문학내적으로는 漢代의 규범화된 문학관과 魏晉代의 자율적 문학관과의 통합이라는 전망하에 내편에서의 成仙의 논리가 그대로 창작론에 투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솔직히 갈홍의 창작론은 체계성을 지닌 立論이기에 부족하며 그의 선배였던 陸機가 <文賦>에서보여주었던 방법적인 모색과도 거리가 있는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창작론을 비롯 그의 문학론 전반은 내편과의 긴밀한 조응하에 전개되고 있어 도교의 문학이론으로의 轉化의 一端을 우리로 하여금 엿보게 한다. 아울러 비평사적으로 갈홍

34) 劉勰, 《文心雕龍》, 卷 6, <體性>.

35) “黃氏札記云, 才氣本之情性, 學習並歸陶染, 括而論之, 性習二者而已.”(張立齋, 《文心雕龍註訂》, p. 287.)

의 위치는 曹丕·陸機와 劉勰 사이의 교량에 해당되는 바, 창작론에서도 그가 이러한 承前啓後의 입장에 처해 있음이 본고를 통해 확인된다 할 것이다.

〈참고서목〉

1. 葛洪. 《抱朴子》.
2. 王充. 《論衡》.
3. 劉勰. 《文心雕龍》.
4. 《文選》.
5. 《全晉文》.
6. 《史記》.
7. 《晉書》.
8. 郭紹虞. 《中國文學批評史》(臺北: 明倫出版社, 1970)
9. 羅根澤. 《魏晉六朝文學批評史》(臺北: 商務印書館, 1976)
10. 朱榮智. 《兩漢文學理論之研究》(臺北: 聯經出版社, 1978)
11. 陳飛龍. 《葛洪之文論及其生平》(臺北: 文史哲出版社, 1980)
12. 梁榮茂. 《抱朴子研究》(臺北: 牧童出版社, 1977)
13. 林麗雪. 《抱朴子內外篇思想析論》(臺北: 學生書局, 1980)
14. 林田愼之助. 《中國中世文學評論史》(東京: 創文社, 1979)
15. 許世瑛. 〈晉時南北人相輕〉《大陸雜誌》(1950), No. 1-6.
16. 大淵忍爾. 〈抱朴子研究序說〉《岡山大學法文學部紀要》(1956). No. 5.
17. 石島快隆. 〈葛洪の儒家及び道家思想の系列とその系譜的意義について〉
《駒澤大學研究紀要》(1959). No. 17.
18. 安岡正篤. 〈老壯思想に於ける藝術的及宗教的素質とその影響〉《支那》
(1927). No. 18-1.